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우리 사회가 '5무(無)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첫째는 공학만 있고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민주당 20년 집권론', '반문 연대' 등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 공학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주저없이 전략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구사한다. 철학이란 '습관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철학의 빈곤 속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쟁과 대립, 포용과 협치보다는 독식과 배제, 합의와 소통보다는 투쟁과 불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치만 있고 정치가 없다. 집권 세력은 이념과 코드에 맞춰 통치를 하면서 종종 정치를 무시한다. 정치로 풀이

‘5무(無) 정치’에서 벗어나야

야 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는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군림하고 통치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에 빠져 있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 추구가 아니라 갈등 조정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셋째,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없다.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지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에만 의존하면 리더십은 발휘될 수 없다. 리더십은 설득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권력에만 의존했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투쟁만 있고 대안은 없다. 민주당의 국가에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인 대통령은 21일 “지금까지는 국정 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 성과와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하지만 '5무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고 사회 갈등도 증폭된다. 문 대통령이 분열과 갈등의 '5무 정치'를 극복해 국정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당내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장관에게 전권을 주는 '내각 중심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와대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권력을 폭넓게 분산하고 집권당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합과 공존'의 정신과 함께 야당을 적폐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야당과 되돌아갈 수 없는 뜨거운 협치를 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의 '잘못한 일은 잘못

했다'고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국정 과제에 대한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성과가 저절로 나오진 않는다. 한국궐립이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묻은 결과(11월 6-8일), '나빠질 것'(53%)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16%)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문제는 6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아무리 '소득 주도 성장'의 방향이 옳더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부터는 시장과 기업이 반응할 수 있는 혁신 성장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인 '계도 민주주의'와 '행정 독주적 사고'와도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다. 운동도, 촛불도, 경선도 이 한계를 넘어 설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대통령이 되라는 주문이다.

종교칼럼

사랑과 배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화를 보고



장헌균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논리적인 설득도 아니다. 어눌할지라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실과 진심'이 마음을 움직인다. 필자는 영화와 시가 '진실과 진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본다. 필자는 최근에 '바울(Paul, Apostle of Christ, 2018)'이라는 영화를 봤다. 기독교 영화임에도 '바울'은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졌다.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을 통한 사도 바울 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경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약 30년 후인 AD 67년,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대화재 원인을 신봉 종교인 기독교에 돌린다. 짐

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불태워지며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바울은 네로의 명령에 의해 감옥에 갇혀 사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초대 교회 성도들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이라 고백하는 바울이다. 아침이면 콜로세움으로 끌려가야 하는 '누가'라는 인물을 로마 교도관 장인 모리수스가 급히 찾는다. 그의 딸이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방 우상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로마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다. 모리수스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때 바울은 의사 누가를 추천한다. 누가는 그의 딸을 수술하는 동안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한다. 결국 치료가 되면서 모리수스는 기독교인에게 호의를 가지게 된다. 필자는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흔적을 봤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흔적이다.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다. 보람이며 자랑이다. 그래서 해박한 학문도, 율법을 위한 열심도, 사회적 화려한 신분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

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영화 '바울'은 얼마나 잔잔하게 영혼에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린도전서 13장 4절-7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이외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하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롬 13:10)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는 바울의 모습이다. 그 뿐인가. 고통의 현장에서 누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본다. '오직 사랑만이 악을 이긴다'는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돈다. 바울은 믿음을 고수한 채 참수형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던 시절 박해했던 한 무리가, 스테파스와 함께 웃으면서 바울을 하는 문에서 만나러 나온 다. 이제야 흠기분해진 바울에게 멀리서

주님께서 걸어 나오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 필자는 바울이 들려준 잔잔한 말씀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는 기독교의 평범한 진리에 비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거룩한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될 것 같다. 영화 '바울'은 논픽션과 픽션이 어울려 성경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알려준다. 앤드류 하이엇이 감독을 맡고 제임스 펠크너(바울 역)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제임스 카비젤(누가 역), 안드레 아귀우스(스테반 역)의 연기도 볼만하다. 감동의 영화는 바로 일어날 수 없다.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물론 모든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다시 말해 영화를 만든 모든 이들에 대한 예의는 마지막 자막(엔딩 크레딧)까지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다. 영화 '바울'은 종교를 떠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느끼고자 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자막까지 보기를 권한다.

기고

전남에 대학 종합 병원 설립을 기대하며



박안수
농협 창령교육원 교수

지난 10월에 건강 휴양촌인 정남진 장흥에서 '통합 의학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장흥군 인구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박람회를 찾았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끄는 건강은 삶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조선시대 임금들은 어의(御醫)까지 두었지만 평균 수명이 47세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나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남성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여성은 85세 정도로, 남녀 평균 수명은 83세 정도를 통계로 잡고 있다.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의학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142세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 실로 엄청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노령 인구 비율이 14.3%로,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웃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이 24년인 반면, 우리는 고작 17년으로 학자들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매년 지역 사회 공헌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및 조선대병원 등과 협약하여 의료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에 순회 무료 진료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아직은 턱없이 지원이 적은 상황이다. 올해는 고려 현종(1018년) 때 전주와 나주를 합쳐 명명한 전라도 전년이 되는 해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행사들이 이어 가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 남도는 거기에 걸맞은 복지과 건강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 분권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한다'고 홍보하는 문구를 들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최근 국민 보건 의료 실태 통계에 의하면 전남 지역의 수술 입원 환자 절반 가량이 타 사·도 병원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 도내 사·군별 의료 서비스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의사 인력과 병상 수를 분석한 결과 부족한 의사수가 가장 많았으며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 역시 대도시의 2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니 의료 복지의 많은 분야에서 부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이용 지도 구축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합 병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사망률이 2배나 차이가 나 아무리 중·소 병원(100~200병상)이 많아도 종합 병원(300병상 이상)이

근처 있어야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안 전북 남원 어느 대학의 의과 대학이 폐쇄 조치에 따라 그 대학에 있던 의과 대학을 유지하겠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듯하였으나 지금은 조용하다. 대신 남원시에 4년제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원을 2022년까지 개교하겠다고 한다. 우리 전남에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대학의 종합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립 대학교 종합 병원의 설립 인가와 의과 대학 정원에 대한 사전 정보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매년 총선과 대선 때 공약(公約)이었던 대학의 종합 병원을 여수·순천·광양의 동부권인 국립 순천대학교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제권에 국립 목포대학교의 2개 권역이 각각 운영의 묘를 통해서 의과 대학과 종합 병원을 하루 속히 설립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남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부문에 투자된 기회 비용이 절약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광주시·전남도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상생 발전의 토대인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양 시도는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의 활용 방안에서 불협화음을 낸 데 이어 혁신도시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년 예산안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 예산 39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00억 원을 제외한 390억 원을 혁신도시 공동발전 기금 조달로 마련하자는 광주시의 입장과 배치된다. 시가 '광주를 배제한 초치'라며 반발하고 있음에도, 도는 아예 절반씩 부담하거나 자체 예산으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해 직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앞서 시도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거둔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

는 안을 놓고도 대립했다. 양 시도의 잇단 불협화음으로 '혁신도시 시즈 2'의 핵심 기관이 될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복합혁신센터는 나주 빛가람동 199번지 5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공간에 창업인큐베이터, 기업전시실, 산학연발전센터 등을 조성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불거진 시·도 간 갈등은 지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협력의 결실로 탄생한 공간이다. 과거 시도가 손을 맞잡고 혁신도시 부지 선정, 공공기관 공동 유치 전략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한국전력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던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시군 노조의 전남도 감사 거부 과연 온당한가

전남 지역 일부 시군 공무원노조가 전남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에 이어 신안군 공무원노조도 최근 전남도의 종합 감사와 관련해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감사 거부 명분으로 이들은 권한 없는 감사로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대동령령에 따라 일선 시군에 대해 감사를 하더라도 시군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관행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도 전남도의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전남도 감사관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복 감사 금지, 지자체 수감 부담 경감, 감사 효율성 등을 위해 2010년 행정

감사 규정을 개정했는데 전남도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나주와 신안군 노조의 감사 거부는 공무원 노조의 연대를 통해 자칫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비단 올해만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이 전에도 시군 노조가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한 적이 있지만 검찰에 고발까지 한 적은 없었다. 물론 시군 노조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시군마다 감사 팀이 있는 마당에 전남도의 감사까지 받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감사 거부 명분이 될 수 있을까. 정부나 전남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돈을 받으면서 그 쓰임새 등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無等鼓

언제부터인가 '다문화'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가 돼 버렸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주부, 다문화 센터 등. 도시든 시골이든 외국에서 이주한 이들과 그 자녀들이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탓일 게다. 승승장구하던 총선왕이지만 양비인 계국대장공주(부타시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여러 부인 가운데 조비를 가장 총애한 탓에 계국대장공주를 멀리한 것이다. 참다못한 공주가 이 사실을 로서 최초의 왕까지 탄원하게 된다. 그가 바로 고려 26대 총선왕(忠宣王, 1275-1325)이다. 총선왕은 아버지 총렬왕(忠烈王, 1236-1308)과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계국대장공주(쿠틀룩켄리쉬) 사이에서 태어났다. 총선왕은 고려 왕의 아들이자 쿠빌라이의 외손자로 태어난 데다 나중에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됐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왕이었다. 스펙만큼이나 성인이 된 뒤에는 아버지 총렬왕보다 권세가 높았으나 총렬왕은 아들을 견제하느라 비뻤다. 특히 원나라에 패해 쫓겨난 왜적이 고

려를 침범했을 때, 총렬왕은 강화도로 피신했으나 총선왕은 쿠빌라이에게 원병 1만 명을 요청해 왜적을 물리쳤다. 이로 인해 위기관리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후 원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총렬왕은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 승승장구하던 총선왕이지만 양비인 계국대장공주(부타시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여러 부인 가운데 조비를 가장 총애한 탓에 계국대장공주를 멀리한 것이다. 참다못한 공주가 이 사실을 로서 최초의 왕까지 탄원하게 된다. 그가 바로 고려 26대 총선왕(忠宣王, 1275-1325)이다. 총선왕은 아버지 총렬왕(忠烈王, 1236-1308)과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딸인 계국대장공주(쿠틀룩켄리쉬) 사이에서 태어났다. 총선왕은 고려 왕의 아들이자 쿠빌라이의 외손자로 태어난 데다 나중에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됐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왕이었다. 스펙만큼이나 성인이 된 뒤에는 아버지 총렬왕보다 권세가 높았으나 총렬왕은 아들을 견제하느라 비뻤다. 특히 원나라에 패해 쫓겨난 왜적이 고

훈혈의 역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FAX 222-8005)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처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